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1월 5일(화)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접견
- 방산협력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고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5, 화)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우디를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서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압둘라 장관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2022년과 2023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이 덕분에 국방·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특별한 안부를 전하며,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실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조명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은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둘라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이미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오늘 대한민국 육군에서 준비한 화력 시범과 장비 전시 참관을 통해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접견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이번 만남이 한-사우디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끝>